

	보도자료 (2019. 5. 9 목) 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9	
---	--	---

13대 분야로 살펴보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 「⑩ 북한」 분야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북한’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의 미래는 북한 사회변화의 핵심동인인 ‘김정은 정치 권력 공고화 정도,’ ‘북한 경제 개혁 개방 수준,’ ‘북한 사회 다원화 정도,’ ‘북한 핵무기 포기 의도 여부,’ ‘북한이 마주할 대외환경’ 다섯 가지 변수를 발굴하고 시나리오 매핑(scenario mapping) 방법을 통해 2050년경 북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북한의 김정은 권력 공고화되어 입헌군주제와 같은 상징 권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국제정세를 우호적으로 만들면서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어 경제발전과 사회 다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붕괴로 경우에 따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북한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02-2224-9806, ynomade@nafi.re.kr)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북한’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 특수 이론, 권위주의 정권 체제변화 이론, 근대화 이론 (theory of modernization) 그리고 국제정치의 라이벌리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 사회변화의 핵심동인인 ‘김정은 정치 권력 공고화 정도,’ ‘북한 경제 개혁 개방 수준,’ ‘북한 사회 다원화 정도,’ ‘북한 핵무기 포기 의도 여부,’ ‘북한이 마주할 대외환경’ 다섯 가지 변수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5개의 변수는 연구의 분석 시계(視界)인 2050년까지를 기점으로 극점화 하였다. 즉 김정은 정치권력이 공고화될 것인가 붕괴될 것인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북한 사회가 다원화를 이룩할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2050년경 북한이 마주할 대외환경 즉 대(對)미, 대(對)중, 대(對)일, 대(對)남한의 대북 관계가 우호적일 것인가 비우호적일 것인가로 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50년 예측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북한에 대한 최가능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 부분적인 변화와 경제 분야 개혁개방 성공’이다.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백두혈통에 기반한 수령제와 로동당 통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권력 구조의 양태(form)는 바뀔 수 있는데,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여 입헌군주나 왕조(Monarchy)와 같은 상징 권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다. 경제 영역에서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성공하고 핵 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아낸다면,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발전과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발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경제발전 과정은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를 띠는 것이며 사유재산의 부분적 인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자본가 계층을 형성을 유도하고 사회의 다원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시나리오는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미래예측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반면, 연구팀은 북한체제의 파국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의 낡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개혁·개방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로동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철회와 개인 숭배적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더해 핵을 고집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한층 강화된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경제의 붕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즉, 북한은 내부적으로 개혁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와 외부적으로 세계 최강국과 다수의 강대국이 부과하는 강한 경제 제재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치적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예측이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대량의 탈북자 발생, 정치·경제적 대혼란, 미국과 중국의 북한 주변 군사력 배치 등을 초래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다시 초강대국 간의 무력충돌로 비화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앞에서 언급된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중개자(middleman)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특히 경제 제재가 더 공고해질 것이므로 한국은 중개자로서 북한이 얻으려 하는 체제보장의 수준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수준을 좀 더 낮추도록 유도하여 협상 타결을 적극적으로 중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팀은 한국이 대중(對中)외교를 강화하여 현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개혁·개방을 할 때 중국의 안보이익, 즉 한반도의 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 적극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주변국(특히 미, 중, 일)과 협의하여 빠르고 일관적인 경제적 지원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11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북한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02-2224-9806, ynomade@nafi.re.kr)